

자연과 조화 이루는 천혜의 누정

‘진안 수선루’ 보물 지정 예고... 독특한 외관 · 특색 등 전통적인 누정 건축의 한 부류로 평가 받아

진안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으로부터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됐다고 밝혔다.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57에 위치한 진안 수선루는 1686년(숙종 12년) 건립되고 1888년(고종 25년)과 1892년(고종 29년) 중수된 정자로, 자연암반으로 형성된 동굴에 위치하여 비정형적인 틈 사이에 끼워져 있다.

상부는 흰 창방(기둥머리를 좌우로 연결하는 부재)의 사용, 방 내부는 연등천장(燈天障)(별도로 천장을 만들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만든 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입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둠움과 밝음의 극적 대비 등은 정형의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시의 시대에 과격적으로 시도되었던 건축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누정건축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암굴에 건축했으며 지붕의 전면은 기와로 하고 후면은 돌너와로 마감하여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계에서는 누정의 기능과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독특한 외관 및 특색 등 전통적인 누정 건축의 한 부류로 평가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국가지정문화재 사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됐다.

적으로 지정된 ‘진안 도토리 청자요지’에 이어 수선루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철저한 문화재 보존·

관리와 지역의 다른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광역 · 전북새일센터, 여성친화기업 CEO · 인사담당자 교류회 열어... 일 · 생활 균형문화 조성

전북광역 ·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운애 센터장)는 14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여성친화일촌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류회는 도내 여성친화일촌기업 CEO · 인사담당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박진우 명예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의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 특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성공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2020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통해 기업에 직

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용정책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부대행사로는 ‘동아블랙벨트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의 칼군무 축하공연으로 기업 간 협찬 응원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대상 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농업회사법인(유)떡두개비,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 ㈜큰사람아카데미의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도 증정했다.

이번 교류회에 참여한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들은 센터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기업 간 네트워크의 장을 통해 향후 여성인력의 지속고용과 다양한 노력으로 여성과 기업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여성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여성친화기업 및 유망기업 대표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찾는 여성들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새일센터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 활용에 고용확대에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 수능수험생 격려 ‘딴타라 & 라쇼’ 무료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9년 고생한 수능생을 위한 아심찬 기획공연 비보이댄스 ‘라쇼’와 걸스댄스 ‘딴타라’를 19일 오전 10시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라쇼포원은 2002년 조성국 단장을 중심으로 창단한 비보이 크루로 각종 세계 대회를 석권했으며,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등 창작

성과 함께 예술성을 겸비한 팀으로 대한민국 비보이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팀으로 꼽힌다. 공연에 선보일 ‘La Show’는 라스트포원의 퍼포먼스와 연기, 미임, 비트바스가 어우러져 흥겨운 무대가 될 것이다.

조이풀은 여성 댄서와 검무, 해금이 어우러져 보람이 없는 본연의 소리와 움직임들로 날

것 그대로의 연주를 보여주는 딴타라 공연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능고사를 치루느라 고생한 수험생을 위해 준비한 공연인 만큼 관내의 수험생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한방에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했다.

본 공연은 만 8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간의 기록을 남겨보아요”

정읍시립미술관, 세계절 주제로 소장품 선보여

정읍시가 14일부터 다음달 29까지 46일간 세계절을 주제로 정읍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반복된 시간들’을 갖는다.

2017년 3월 ‘봄’을 주제로 열렸던 ‘봄을 보다’전을 시작으로 세 번째 열리는 소장품 전시이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절’을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반복된 시간들’에서는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세계절을 표현한 평면 · 입체 작품과 서예 작품 총 30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를 포함해 관람 후 관람객들이 시간의 기록을 남겨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립미술관 미공개 소장품을 우리 시민들께 공개함으로써 정읍의 미술 문화를 알리고 동시에 시민들의 방문으로 미술관이 예술로 소통해 가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ongseup.go.kr/culture/index.jongse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난버벌 퍼포먼스 ‘B-School’ 공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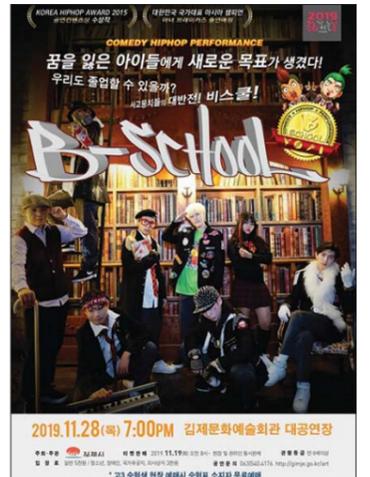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8일 오후 7시 11월 문화가 있는 날 난버벌 퍼포먼스 ‘B-School’ 공연을 개최한다.

비스쿨은 사회가 정해놓은 B급 인생들이 주요 등장인물이 되어 비스쿨이라는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세상의 편견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는,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교몽치들의 꿈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다.

합합의 4대 요소인 그래피티, MC, B-BOY, DJ와 코미디를 결합하여 사회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유쾌한 음악과 즐거운 입담, 그리고 비보이로 풀어내어 감동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19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며, 고3 수험생 현장예매 시 수험표 소지자에 한해 무료로 예매 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